

# 경제부총리 “유류세 인하 4월까지”

### “국내외 유가 상승에 인하여 조치 연장 불가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유류세 인하여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물가 흐름은 예상한 대로 상반기에는 3% 내외로 움직이다가 하반기 2%대 초반대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돼 유류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를 포함해 과잉 할인 등 재정지원 규모도 계획보다 늘었다”며 “물가 상승 기대심리가 경제 주체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소통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단련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지난해 1월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는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정책을 4월까지 유지하는 등 총 8차례 유류세를 연장한 셈이다.

국내 유가는 지난 15일 기준 휘발유의 경우 1당 1615원으로 1600원선을 넘어섰다. 경유는 1당 1518원 수준을 보였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라 휘발유는 1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여 전 세를 대비 205원 가격이 내려간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1당 369원, 130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212원,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기재부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27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용 플랫폼도 늘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도 정책 수요자를 떠나 기자, 평가 단계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도 리플할



농진청 그린프린터어 위촉식

농진청은 지난 16일, 올해도 젊은 공직자들 주도로 조직문화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청 내 혁신모임 ‘그린프린터어’를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수 있고 보완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정책 품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2월 말까지 경제정책방향 소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30개 과제를 선정해 국민에게 피드백을 듣고 리콜(recall·소환)·보완해 2주 단위로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역동 경제’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서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핵심 어젠다를 만들어야 한다”며 “하나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도 리플할

농진청은 2023년 1615원으로 1600원선을 넘어섰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라 휘발유는 1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여 전 세를 대비 205원 가격이 내려간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1당 369원, 130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212원,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기재부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27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용 플랫폼도 늘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도 정책 수요자를 떠나 기자, 평가 단계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도 리플할

## 작년 종합건설 회사 실적신고금 4조322억

### 건협 전복, 전년 대비 0.4% 감소... 계성건설 1912억원 1위 복귀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종합건설 회사 77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건설공사 실적은 2.1~15까지 신고받은 결과 760개사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기성 실적신고 금액은 전년 대비 0.4%(173억원) 감소한 4조 3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소원인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종합건설업 진출에 따라 신고업체수는 증가되었지만, 고급리·원자재값 상승·인건비 인상·미분양 누적 등으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2023년도 도내 실적 1위는 전년도 2위였던 계성건설(주)이 차지했다. 전년도 1위였던 (주)신성건설이 한 단계 내려와 2위를 기록했다. (주)제일건설이 민간주택사업 수주 실적으로 3위로 한단계 오르고, 4위는 (주)금도건설이 5위는 (주)군장종합건설이 차지했다.

그 외에 50위권내로 이도종합건설(주)(16위), (유)더본건설(18위),

(유)무왕건설(21위), 정주건설(주)(32위), 제이씨엔(주)(35위), (주)센텀건설(36위), (유)금강종합건설(37위), 부일건설(주)(38위), (유)동경건설(39위), (유)승명종합건설(41위), (유)태웅건설(42위), (주)건우(43위), (주)다함(46위), (유)쌍마건설(47위), 합동건설(주)(48위), 지엘(주)(49위), (주)에이치씨건설(50위)이 새롭게 진입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소재철 회장은 “전장 등 불안한 국제경제 속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가 위축되었고, 부동산경기 침체와 전반적인 SOC 예산이 소폭증가에 그쳐, 올해도 건설 경기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도내에 발주되는 공공공사 등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10조원의 투자성공을 내 새민국 국가산내내 입주기업을 신 설 건설 예도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수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 전문건설 기성실적신고 금액 2조8397억

### 전건협 전복, 어려운 경제여건 속 전년 대비 0.5% 증가

### 기성신고액 1위에 유림개발... 반석중공업, 2위 차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 이하 전북자치도회)는 지난 15일 “2023년도 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를 접수 마감한 결과 도내 3,034개 전문건설업체가 접수했다.

기성실적신고 총액은 2022년 기성실적신고 접수마감기준 총액 대비 0.5% 증가한 2조8,397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전북자치도회는 분쟁과 정쟁으로 불안한 국제경제로 인한 원자재 수급불안과 물가상승 거기에 국제금리인상의 악재까지 더해져, 국내 건설경기는 극심한 침체상황을 겪고 있는데다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허용으로 인한 수주불균형으로 전반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하도급전담부서(건설수주팀)의 지역전문건설업체 홍보활동 및 대형건설사 분사와 현장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제고를 위한 꾸준한 세일즈활동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주액의 감소없이 소폭 증가를 이루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이 공사금액 증가로 이어져 수차상 실적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어

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굳은 의지로 고군분투해 기성실적의 상승을 이뤘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회 임근홍 회장은, “불안정한 국제경제 및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혼란한 경제상황 속에서 지난 한 해도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신 회원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도회는 2024년에도 전북특별자치도의 하도급전담부서와 유기적인 업무공조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일감확보 및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 및 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대응과 관련해 우리 협회가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공사에 성공해 4억3,000만원의 전문공사 보호 구간 상황과 기간 연장이라는 패를 거두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기성신고액 1위는 683억원의 신고한 (주)유림개발(대표 최영진)이,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명환)이 669억원으로 2위, 도성토건(주)(대표 김세봉)이 3위(492억원), 반석피이비(주)(대표 김명환)이 410억원으로 4위, (주)준건설(대표 한상남)이 5위(388억)를 차지했다. /김욱기 기자

## 경진원, 도내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해외규격인증 543개, 기업당 최대 1천만원까지 비용 지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분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제

조 기업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진원은 지난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으로 도내 12업체를 지원하여 HALAL(이슬람식 식품 인증), CPNP(유럽화장품등록)인증 등 총 7개 인증 취득을 지원했다.

이에 426만 달러(USD)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이 매년 증가하고있는 추세로 해외규격인증 획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CE(유럽공통마크), FDA(미국식품의약품) 등 올해 543개로 인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비용 등 직접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인증별 상이)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www.jbexport.or.kr)에서 신청가능하다. /김욱기 기자

## 농진청,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전략 등 △민원 제도 운영 △국민민원민원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최우수)을 받아 민원 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민원 정보 제공 및 법령 운영, 제도개선 등 민원 제도 운영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청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북개발공사, 익산부승데시앙 분양사무소 이전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익산부승 도시개발 사업지구 주차장 용지 내 운영중이던 익산부승 데시앙 모델하우스를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3일 폐관, 분양사무소를 이전해 16일부터 전역세대 분양 및 행정 제반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 분양사무소는 기존 모델하우스

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인 무양로 23길 13(신익산새마을금고 삼성지점 4층)에 위치, 분양사무소 이전에 따른 분양고객의 불편함 없이 최고의 서비스로 분양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부승 데시앙 공공주택은 민간 참여 공공분양아파트로 8개동 전용면적 84㎡ 3개타입 총 745가구로 건립된다. 동절기 기간(24.1.1~2.14) 동안



팔조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중지하였던 건설공사를 지난 2월 15일부터 정상재개, 25년 하반기 공사준공 및 입주에 차질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H2A엔아이한라와 함께 지난 16일 전주에서 ‘서신 더샵 비발디’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서신 더샵 비발디’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4번지 일원에 지하3층~지상 최고 20층, 28개동, 총 1,91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59~120㎡, 1,225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분양물량은 △59㎡ 177가구 △73㎡ 261가구 △84㎡ 710가구 △120㎡ 77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3월 6일 발표하고, 3월 18일에서 22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및 청약예치금 총액 시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용 120㎡ 타입은 100% 추천제, 이외 타입은 추천제 60% 및 가점제 40%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만큼 청약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요소다.

‘서신 더샵 비발디’는 각종 인프라가 조성돼 있는 원도심 정비사업

##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전주서 ‘서신 더샵 비발디’ 견본주택 개관 교육·교통·자연 아우르는 생활인프라 풍부



전주 ‘서신 더샵 비발디’ 투시도

단지, 입주와 동시에 양질의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전북 유일의 백화점인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전북대병원·원광대 전주한방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서신동주민센터 등 각종 공공기관도 지근거리이다.

여기에 서문초, 서신중, 한일고 등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전주시립 서신도서관을 비롯해 각종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반경 1km 이내에는 대형 학원가가 형성돼 있는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사통팔달 교통망도 눈여겨볼 만하

- 지상 최고 20층 28개동
- 1225가구 일반 분양
- 26일 특별공급 시작으로
- 27~28일 1~2순위 청약
- 내달 6일 당첨자 발표

다. 백제대로·전통로 등이 인접해 지역 내 이동이 쉽고,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와 순천원주고속도로 동전주IC 이용시 차량을 통해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전주역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등이 가깝고, 전주역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SRT 전라선이 개통된 만큼 서울 수서역까지 직통으로 1시간 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우수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둔 직주근접성도 주목된다. 단지 주변으로 공공기관 및 대학교, 방송사 등이 집적돼 있고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를 비롯해 전북 테크노파크, 전주일반산업단지, 전주친환경복합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및 전북대 일원을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향후 일자리 창출에 따른 주거수요 유입이 예상된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구현된다. 단지 주변으로 전주천과 삼천이 흐르고 있고, 하천을 따라 산책길 및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어 입주민들의 여가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인터공원을 비롯해 도내기생공원, 전통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문화대공원, 전주종합경기장, 화산체육관, 도내기생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서신 더샵 비발디’는 차별화된 상품성도 갖추게 된다. 카운터 톨, 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간재를 이용한 스틸 아트월 등 지역에서 보기 드문 특화 경관 디자인 설계를 도입하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지상의 경우 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구현되며, 단지 내 조경시설에는 네이처 테라스를 비롯해 스플래시 가든, 산수정원 등 특화정원이 마련될 예정

이다. 이밖에, 가구당 1.43대에 달하는 넉넉한 주차공간을 조성해 입주민들의 주차 불편도 덜었다.

이외에, 포스코이앤씨가 개발한 친환경 중대형 평면의 대표적인 특화 공간으로 정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파틱 테라스(유상/일부타입)’가 전용 120㎡B 타입에 포함될 것을 필두로, 타입별로 인방 드레스룸, 알파룸, 현관창고, ‘G·C’ 자형 주방 등 수요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설계를 대거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실내러닝트랙과 GX룸을 갖춘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키즈룸·스튜디오 등의 원스톱 문화공간 카페, 스타디오키페, 프리미엄 안심보관센터 등 단계별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서신 더샵 비발디는 그간 주택공급이 많지 않았던 전주시 내 모처럼 들어서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라는 점에서 분양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컸던 단지”라며 “각종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 이른바 ‘전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서신동 내 노른자위 입지인 데다, 특화설계 및 커뮤니티 등 상품성도 갖추게 되는 만큼 다가오는 청약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욱기 기자